

전일동향

전일대비 2.80 상승한 1,336.00원에 마감

30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2.80원 상승한 1,336.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20원 하락한 1,333.00원에 개장했다. 하락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1,335원을 중심으로 횡보했으나 코스피가 상승하자 개장가 수준으로 상승폭을 축소했다. 오후장에서 환율은 월말임에도 저가매수 우위에 재차 상승세를 보이며 1,336.0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3.0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21.15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33.00	1337.50	1332.40	1336.00	1334.80
	엔화	919.45	922.70	910.74	913.89	-
	유로화	1476.66	1480.62	1468.32	1475.81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2.46	-7.65	-14.13	-23.86
	결제환율(수입)	-2.05	-6.76	-12.43	-20.55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연준 빅컷 기대 약화에...1,33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6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36.00) 대비 1.25원 상승한 1,334.6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연준 9월 빅컷 기대 약화로 인한 강달러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7월 PCE는 전년동월 대비 2.5% 상승하며 예상치에 부합했다. 근원 PCE는 전년동월 대비 2.6% 상승하며 전망치(2.7%)를 소폭 하회했다. 또한, 함께 발표된 7월 개인소비지출과 개인소득은 각각 전월대비 0.5%, 0.3% 증가하며 전망치 부합 및 상회했다. 견조한 소비 회복세에 시장에서 연준의 9월 금리 인하폭은 50bp보다 25bp가 합리적이라는 진단이 부상했다. 이에 미국 2년 국채금리와 달러화는 동반 상승했다. 유로화는 유로존 인플레이션 및 프랑스 물가 하락에 ECB 9월 금리인하 기대가 재조명을 받으며 하락했다. 엔화는 도쿄 지역 인플레이션 확대에 강세를 보이며 144엔까지 하락했으나 달러화 반등 영향에 146엔 초반을 회복했다. 금일 환율은 경기 연착륙 가능성에 따른 연준 빅컷 가능성 후퇴와 달러 강세에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약달러에 연동되어 원화 강세에 배팅하던 포지션 청산과 수출업체 추격매수 등은 환율 상승 분위기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출업체 이월 네고, 위안화 강세 부담 등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32.33 ~ 1340.33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806.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25원 ↑
	■ 美 다우지수 : 41563.08, +228.03p(+0.55%)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9.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158 억원